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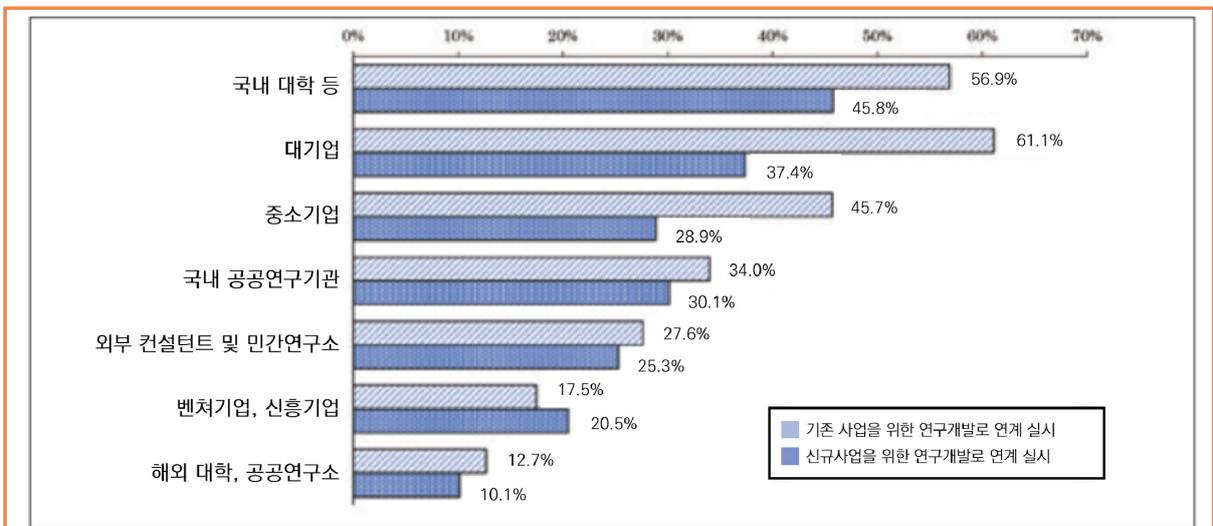
# 주요 통계

## 1 과학 기술

**일본 「기존 기업 및 벤처기업을 둘러싼 혁신 생태계 현황과 전망」 주요 내용**  
 일본 과학기술·학술정책연구소(NISTEP)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「민간기업 연구활동 실태조사」를 실시하고 있으며,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업과 벤처기업의 관계와 대학·벤처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\* 발표 (‘24.8.)  
 \* 既存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を取り巻くイノベーション・エコシステムの状況-「民間企業の研究活動に関する調査 2023」を用いた分析-

- ⇒ 일본은 「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」에 근거하여 **혁신 생태계 형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촉진**하는 정책이 수립·시행 중
  - 벤처기업과 기존 기업은 자원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조직이며, 양자가 협력하는 것이 혁신 창출로 이어진다고 평가하며,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
  - 신규사업용 연구개발에서 협력하는 비율은 국내 대학 (45.8%)이 가장 높았고, 기존사업용의 경우 대기업(61.1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  - 벤처기업-스타트업을 협력 파트너로 하는 경우,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

〈 타 기관과의 협력 비율 〉



\* '대기업', '중소기업'은 '외부 컨설턴트 및 민간연구소', '벤처기업, 신생기업'을 포함하지 않음

출처 : 일본 NISTEP(2024), 既存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を取り巻くイノベーション・エコシステムの状況-「民間企業の研究活動に関する調査 2023」を用いた分析-, 도표 1.

● 대학발 벤처기업은 매출보다 연구개발을 우선시하는 경향

- 대학발 벤처기업은 신규사업에 할당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으며, 연구개발 기간별로 보면 단기(1년~3년 미만)와 장기(5년 이상)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
- 이는 기초적인 기술개발에 집중하고, 매출 확보보다 연구개발을 우선시하는 경영방향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

〈 연구개발 수행 목적별, 기간별 연구개발 비율 평균 〉

	연구개발 목적		연구개발 기간		
	기존사업	신규사업	단기 (1~3년)	중기 (3~5년)	장기 (5년 이상)
대학發 벤처기업	43.4%	56.5%	36.8%	27.3%	35.9%
전체 기업	74.9%	25.1%	54.7%	25.9%	19.4%

●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상품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전문성이 큰 박사급 인력을 활용

- 대학출신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자를 채용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, 구성비로 보면 박사학위 취득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특히 높음
-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을 보더라도 박사학위 취득자가 전체 채용 연구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

〈 대학발 벤처기업의 채용활동 (최종학력별 채용비율, 평균 채용인원) 〉

A) 연구개발자를 채용한 기업의 비율

	전체 평균	학사	석사	박사	박사후과정
대학發 벤처기업	52.9%	17.6%	17.6%	29.4%	11.8%
전체 기업	53.8%	32.4%	38.2%	9.9%	0.9%

B) 연구개발자의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

	전체 평균	학사	석사	박사
대학發 벤처기업	1.2	0.3	0.3	0.3
전체 기업	5.5	1.6	3.1	0.3



- 대학발 벤처기업이 타 기관과 협력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, 협력 지원책을 기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

〈 대학발 벤처의 조직 간 연계 이유 〉

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계한 이유	대학발 벤처기업	전체 기업
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	11.8%	65.2%
연구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	29.4%	30.5%
연구개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	35.3%	27.7%
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	11.8%	59.9%
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	70.6%	59.1%
연구개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	41.2%	54.5%

- 대학발 벤처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집계한 결과 ‘자사 기술 유출 우려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전체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 간 협력에 있어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내포
- 대학발 벤처기업에서는 ‘연계를 위한 보조금 등 정부 등의 연계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’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, 정부의 연계 지원책을 기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

〈 대학발 벤처의 조직 간 협력 문제 〉

국내 기업과의 연계 문제점	대학발 벤처기업	전체 기업
연계 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한 정보 부족	0.0%	37.3%
연계로 이어질 기회 및 장소 부족	5.9%	38.1%
연계하고 싶은 기술을 가진 상대의 부족	17.6%	27.6%
조직·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자사와 적합한 연계처 부족	11.8%	14.4%
자사 기술 유출 우려	29.4%	50.3%
연계 성과에 대한 자사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음	17.6%	34.4%
연계를 위한 조정과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 및 수고가 큼	5.9%	46.3%
연계로 인한 연구개발 시간 장기화	5.9%	6.9%
연계를 위한 보조금 등 정부의 연계 지원책 불충분	23.5%	13.2%
연계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불충분	0.0%	4.3%
기타	5.9%	1.3%

출처 : 일본 과학기술·학술정책연구소 (2024.8.26.)

<https://www.nistep.go.jp/wp/wp-content/uploads/NISTEP-STIH10-3-00374.pdf>